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정답

1	⑤	2	③	3	①	4	③	5	⑤
6	③	7	③	8	①	9	②	10	①
11	②	12	②	13	④	14	⑤	15	④
16	①	17	②						

[1~3] 허난설헌 '규원가'-2015.7A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 ➔ '옛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와 같은 구절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모습에 대해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 4음보를 사용하여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시에서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 ➔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싫다'에서 '새소리'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설빙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한탄스러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과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에서 대구가 사용되었으나,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 가사이다. 이 작품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 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군.

- ➔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는 한편, 자신의 늙은 모습에 한탄하는 내용의 시이다. 따라서 '서러운 말'에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 ② '스스로 참피하니'를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군.
- ➔ '스스로 참피하니'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한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 ➔ '천상의 견우직녀'는 칠월칠석에 일년에 하루라도 만나지만, 화자는 소식마저 그쳐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천상의 견우직녀'는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심화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④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군.
- ➔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라는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나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 ➔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는 자신이 아닌 남편의 잘못으로 살동말동한다는 말로, 남편을 원망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3. 윗글과 <보기>의 **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내 **꿈**아  
만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 사이에 다녀오고  
반갑다 학가 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 이정환, 「비가(悲歌)」, 제1수 -

\* 요양: 청나라 심양.  
\* 학가 선용: '왕세자가 타던 수레'와 '신선의 용모'를 뜻하는 말로, 불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이룸.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 ➔ 「규원가」의 '꿈'은 '임'을 보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리움이 바탕이 된다. <보기>의 '꿈'역시 불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보는 매개체가 되므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 ➔ 「규원가」의 내적 갈등은 자신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다. 이는 꿈이 아닌 남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③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 <보기>에서는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 「규원가」의 화자와 ‘임’도, <보기>의 화자와 두 왕자도, 꿈을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다.
- ⑤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라는 장치로 극복된 결과를 보여준다.  
→ 「규원가」에서 꿈을 통해 ‘임’을 보고자 하였으나, 풀벌레와 바람에 지는 잎이 잠을 방해 하여 꿈조차 꾸지 못하였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4~8] 2019.10 인문

4. 밑글에 제시된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 ①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 1문단에서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 ②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 2문단에서 사건은 사회 전체가 아닌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 ③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3문단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라고 하였으므로 ‘바디우’는 개인이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④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 5문단에서 바디우는 진리 절차를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진리는 4문단에서 ‘거짓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 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6문단에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닌, 이미 일어났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5.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 1문단에서 바디우는 사건을 계기로 진리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은 ㉡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 자체가 ㉡은 아니다.  
→ 6문단에서 바디우는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 ③ ㉡을 이루는 요소는 ㉠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 4문단에서 바디우는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이룬다고 말한다.
- ④ ㉠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  
→ 2문단에서 바디우는 사건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6문단에서 진리는 시간의 경과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보다 ㉠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  
→ 2문단에서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설명하는 바는 바디우가 개인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는 비판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지문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 다양한 영역의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다양한 영역의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 선지의 답이 된다.

- ① 개인을 하나의 진리 절차에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다양한 영역의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② 개인을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 ‘다양한 영역의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③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진리 절차는 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개인이 다양한 영역의 주체의 일부가 되면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가 된다.
- ④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바디우는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다.
- ⑤ 개인을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 바디우는 개인이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

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화평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임시 국방정부의 수반인 아돌프 티에르가 국민 방위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하고 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 자연발생적인 민중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여성 참정권 실현, 아동 야간 노동 금지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자치 정부는 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이 일은 역사에서 시민 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되며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 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 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
- ➔ 바디우는 사건을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라면,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
- ② 바디우는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발생적인 민중 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
- ➔ 3문단에서 바디우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이 이름은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파리코뮌은 사회 구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므로 흔적의 예시가 될 수 있다.
- ③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코뮌’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
- ➔ 2문단에서 바디우는 사건을 미리 계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파리코뮌도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 우연에 의한 결과로 볼 것이다.
- ④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코뮌’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안에 존재하는 요소들중 사건에 충실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탐색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리 절차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진리는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므로 적절하다.
- ⑤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코뮌’을 이어 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 ➔ 6문단에서 바디우는 용기란 사회구조를 변화하기 위해 사회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탐색의 과정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파리코뮌을 이어가기 위한 탐색은 바디우가 말하는 용기라고 볼 수 있다.

8.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構成)한다고
- ➔ ㉠의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이루다.’라는 뜻을 가진 ‘구성한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② 성취(成就)한다고
- ➔ ‘성취하다’는 ‘목적한 바를 이루다.’의 의미이다. 문맥상 교체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 ③ 탐구(探究)한다고
- ➔ ‘탐구하다’는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찾아내거나 얻어 내다.’의 의미이다. 문맥상 교체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 ④ 포괄(包括)한다고
- ➔ ‘포괄하다’는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다.’의 의미이다. 문맥상 교체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 ⑤ 표방(標榜)한다고
- ➔ ‘표방하다’는 ‘어떤 명목을 붙여 주의나 주장 또는 처지를 앞에 내세우다.’의 의미이다. 문맥상 교체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9~12] 2016.10 서정인 ‘강’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다.
- ➔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는 인물은 ‘여차장’이 아닌 ‘운전사’이다.
- ② ‘김 씨’는 ‘이 씨’의 옆에, ‘박 씨’는 ‘이 씨’의 뒤에 앉아 있다.
- ➔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의 여자에게까지’ 껌을 나눠주었다. 이 서술에서 ‘김 씨’가 ‘이 씨’의 옆에, ‘이 씨’의 뒤에 ‘박 씨’가 앉아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 씨’는 ‘여자’에게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다.
- ➔ ‘여자’에게 ‘집이 원래 군하리요?’라는 말로 운을 떼며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는 인물은 ‘박 씨’이다.
- ④ ‘운전사’는 손님들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 ➔ ‘정원 사십팔 명에 한 백 명쯤 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북적거리고 있었더라면 운전사가 조금은 미안해했을지도 모를 텐데.’의 서술에서 ‘운전사’가 조금도 미안해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김 씨’는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다.
- ➔ 자신을 ‘박 씨’라고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김 씨’가 아닌 ‘박 씨’의 집에 일행이 하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하던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여자의 웃음 소리는 김씨의 상상을 망쳐 버린다.’에서 ㉠이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 ㉡은 ‘박 씨’와 ‘여자’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이다. 대화 중의 웃음 소리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감은 ㉡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과 ㉡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인물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고, ㉡은 인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에 대해 ‘김 씨’는 서운치 않다고만 했을 뿐, 호감이 강화되지는 않았다. ㉡은 대화 중 나오는 웃음소리로, 호감이 강화될 수는 있으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과 ㉡은 모두 인물의 상상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다.  
 → ㉠과 ㉡ 모두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앞선 대화에서는 여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 여차장이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추론이다.
- ② ㉡: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 ㉡에서 박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자한다는 서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 ③ ㉢: 비꼬는 말투를 통해 버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 버스는 목적이 달리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발화는 버스가 늦게 출발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발화임을 알 수 있다.
- ④ ㉣: 상대방이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 앞서 ‘이 씨’가 여차장에게 ‘너, 꿈이로구나?’라고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받아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 박 씨의 질문에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라는 대답을 하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윗글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자리에서 걸돌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소설에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데 윗글에서는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방해하는 서사적 장치들도 사용되고 있다.

- ① ‘박 씨’에 대한 정보는 ‘고깔모자’, ‘기피자’, ‘전직 교사’와 같이 부분적인 것들이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 ‘박 씨’에 대한 정보는 여러번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한집에 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 들은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김 씨’, ‘이 씨’, ‘박 씨’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지도 않다.
- ③ ‘이 씨’가 ‘여차장’에게 무의미한 농담을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씨’와 ‘여차장’이 나누는 대화는 무의미한 농담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 ④ ‘박 씨’와 ‘김 씨’, ‘이 씨’ 등으로 서술 대상을 계속 바꾸어 서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처음에는 ‘박 씨’, 다음은 ‘김 씨’, 다음은 ‘이 씨’ 그 후에 ‘박 씨’로 서술 대상을 계속 바꾸어 서술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⑤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에 빠져드는 장면이 다른 인물들의 대화에 바로 이어져서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에 빠져드는 장면이 박씨의 대화 바로 다음에 이어져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13~17] 2020.04 과학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단응력이 작용하면 유체의 형태는 변형된다.  
 → 2문단에서 유체는 ‘전단응력이 작용할 때 그 형태가 연속적으로 변형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응력과 점성의 개념으로 유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1문단에서 ‘유체역학에서는 응력과 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체의 특성을 설명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점성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 때문에 나타난다.  
 → 2문단에서 ‘점성이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전단응력은 물질의 표면에 평행하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 2문단에서 전단응력은 응력 중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응력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내부에서 이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힘이라고 정의하였으므로 전단응력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액체와 기체는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 1문단에서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는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보기>는 윗글의 [실험] 설계에 따라 실험한 결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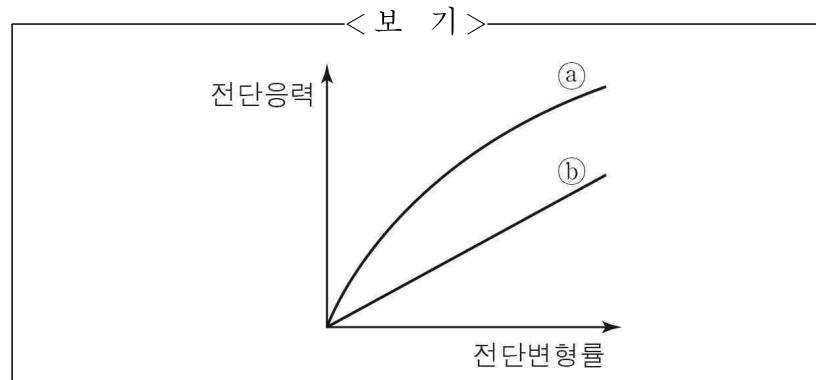
< 보 기 >

[실험 결과]			
측정 항목 \ 실험	A	B	C
전단변형률	10	20	10

\* 온도와 압력은 모든 실험에서 동일하다.  
\* 실험에 사용된 유체는 각각 다른 뉴턴 유체이다.

- ① A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응력이 증가한다면 전단변형률은 증가하겠군.  
→ 4문단에서 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도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B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응력이 증가하더라도 점성계수는 변하지 않겠군.  
→ 4문단에서 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A와 B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같다면 점성계수는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겠군.  
→ 전단응력 = 점성계수 × 전단변형률이므로 전단응력이 같다면 점성계수와 전단 변형률은 반비례관계이다. <보기>에서 A 유체와 B 유체의 전단변형률 값은 각각 10, 20이므로 작용하는 전단응력이 같다면 점성계수는 A 유체가 더 크다.
- ④ A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은 A에서 사용된 유체가 더 크겠군.  
→ 전단응력 = 점성계수 × 전단변형률이므로 A 유체와 C 유체의 전단변형률 값은 각각 10으로 동일한데 A 유체의 점성계수가 더 크다면 A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더 크다.
- ⑤ B와 C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같다면, C에서 사용된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더 크겠군.  
→ 3문단에서 전단응력 = 점성계수 × 전단변형률이라고 했고 <보기>에서 B 유체와 C 유체의 전단변형률은 각각 20과 10인데 둘의 점성계수가 같다고 했으므로 전단변형률이 더 큰 B 유체의 전단응력이 더 크다. 따라서 적절치 못하다.

15. <보기>는 유체 ①과 ②의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①과 ②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은 점성계수가 변하는 유체라고 할 수 있겠군.  
→ 5문단에서 비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의 크기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 ② ①은 전단응력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유체겠군.  
→ 5문단에서 비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의 크기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전단변형률과 전단응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변하는 곡선의 형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은 비뉴턴 유체이다.
- ③ ②는 온도가 변화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 3문단에서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②는 전단응력에 따라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달라지겠군.  
→ 4문단에서 ‘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점성계수는 유체가 지닌 점성을 수치화하여 표현한 값이라고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고, 점성은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단응력이 변하여도, 유체의 점성계수는 일정하므로 점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②는 전단응력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유체겠군.  
→ 4문단에서 뉴턴 유체의 그래프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②는 뉴턴 유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4문단에서 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도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6.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마요네즈는 단순히 용기를 기울이기만 해서는 흘러나오지 않고, 일정한 힘 이상으로 눌러야만 나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마요네즈는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 ㉠ )보다 ( ㉡ ) 변형이 일어나는 ( ㉢ ) 유체이기 때문이다.

	㉠	㉡	㉢
①	항복응력	커져야	빙햄
②	항복응력	커져야	전단농후
③	항복응력	작아져야	전단회박
④	외부의 힘	커져야	전단농후
⑤	외부의 힘	작아져야	빙햄

[해설] 5문단에서 빙햄 유체를 전단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변형이 없다가 항복응력이라고 지칭되는 일정한 전단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일어나는 유체로 설명하고 있다. 마요네즈는 일정한 힘 이상을 가해야 나오기 시작하므로 빙햄 유체라는 가정을 한다면 ㉢는 '빙햄유체'이다. 이렇게 보면 마요네즈는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항복응력보다 커져야 변형이 일어나므로, ㉠는 '항복응력', ㉡는 '커져야'가 된다.

17.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렀다.  
 → ㉠에서 '부르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인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선지에서는 '값이나 액수 따위를 얼마라고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주제로 다루었다.  
 → ㉡에서 '다루다'는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③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원을 이루었다.  
 → ㉢에서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선지에서는 '뜻한 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 사건의 목격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 ㉣에서 '나타나다'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생겨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선지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 경기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 ㉣에서 '일어나다'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선지에서는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